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웅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4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대한불교진흥원을 비롯한 교계 7개 단체가 '청정지계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치관 전도 물질만능으로 혼란한 우리 현실을 지계 실천을 통해 맑히려는 신선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경전에 나타난 지계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계율지키기

세가지 것이 있어 계(戒)를 아리땁게 해준다. 첫째는 몸으로 행하는 행위가 청정해서 더러움이 없음이다. 둘째는 말이 청정해서 인사에 거칠은 데가 없음이다. 세째는 그 마음이 청정해서 일찌기 어지러워지는 일이 없음이다. 〈대애경〉

계는 온갖 선법(善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온갖 선법이 생겨나는 근본이니, 땅이 온갖 수목의 생겨나는 원인인 것과 같다. 〈열반경〉

계는 해탈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바라제목차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계에 의지해야만 온갖 선정과 고를 없애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계야말로 최상의 안은한 공덕이 갖들어 있는 곳임을. 〈유교경〉

계를 지키는 공덕을 수행해 성취하며, 계를 지키는 공덕 때문에 성불하게 된다. 〈광명경〉

온갖 중생도 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는 말이 안된다. 이 계는 온갖 승속이 누구나 수지해야 한다. 〈무생계경〉

보살은 정계의 배로 과계자를 건네 준다.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 열반의 기슭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육바라밀경〉

보살은 청정한 계로 그 몸을 아리땁게 하고,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계를 굳게 지키도록 한다. 〈수호국계주경〉

계는 시원한 물과 같으니, 심광미만해서 지계자의 신심의 더러움을 씻어 준다. 계는 진기한 보배와 같으니, 착한 사람들은 이를 귀중히 앎으로써 길이 온갖 과실에서 떠난다. 계는 좋은 말과 같으니, 착한 사람들은 이를 타고 진실하게 사유해서 즐거운 과보에 떨어지 않는다. 〈제법집요경〉

계를 지키면 항상 우아하고, 계를 깨면 항상 추하다. 〈천청문경〉

계는 위대한 뱃사공이니, 능히 생사의 바다를 건네 준다. 계는 시원한 못이니, 온갖 번뇌를 씻어낸다. 계는 두려움을 없애는 술법이니, 사해의 독을 제거한다. 〈승기율〉

살생을 떠나 해치지 말며, 투도와 사음과 거짓말, 욕지 않은 말, 틀리는 말, 무의미한 말을 떠나나 한다. 〈회업경〉

관련기사 2 · 3면

"매월1일 청정5계 지키자"

지계 · 보시생활화 '깨끗한 사회' 조성

모든 불자들이 지계와 보시를 생활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신행상을 정립하는 '청정운동'이 범불교적으로 펼쳐진다.

대한불교진흥원과 재가회의 등 교계 7개 단체로 구성된 청정운동추진협의회(위원장 이상번, 대불청회장)는 지난달 27일 대불청 만해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주제로 한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 개최를 비롯한 청정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지켜야할 청정5계
- 아침예불 · 독경 · 참선
- 술 · 고기 · 담배 삼가
- 음식 남기지 않기
- 대중교통수단 이용
- 화내지 않는다

청정운동추진협의회는 청정운동을 "우리 사회의 제반 혼란이 나에게서 비롯됨을 깨닫고 이 순간부터 나를 바루겠다는 신앙개혁 사회개혁운동"이라고 규정하고 매월 1일을 지계일로 정해 청정 5계를 지키고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과 보시금 보내기 등 보시의 생활화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정운동 참여단체가 연합하여 전국 6대 도시에서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를 개최, 범불교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전국대회는 홍보비디오 상영과 강연, 선언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홍보비디오와 스티커는 이미 제작에 들어갔으며, 연사는 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고은(시인)씨와 정병조(동국대) 강건기(전북대)교수 등을 섭외중이다.

청정실천 전국대회는 6월 9일 전주 전북예술회관을 시작으로 대전 우송예술회관(6. 13), 광주 시민회관(6. 20), 부산일보 대강당(7. 6), 대구 시민회관(7. 7), 서울 불교진흥원 대법당(7.17)에서 개최된다. 청정 5계는 △아침예불을 올리고, 독경 또는 참선수행을 한다 △술 고기 담배를 삼가한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화내지 않는다 등이다.

청정운동은 지난해 대한불교진흥원 장상태이사(동국제강 회장)의 발의로 진흥원 설립 20주년 특별사업으로 전개키로 함에따라 준비되었으며, (주)동국제강에서 이 운동의 소요예산 1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청정운동추진협의회에는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청년회 구도회 대원회 대불련동문회 우리는선우 한국불교재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공명선거 가두캠페인

종단협 산하 공명선거계도위원회(위원장 월서)는 오는 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한다.

15대 총선에 앞서 공명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촉구하기위해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각종단 대표스님을 비롯 재가불자가 동참, 총선에 대한 불자들의 의지를 표명한다.

공명선거계도위는 이날 법회에 이어 조계사 탑골공원 종각 광화문일대에서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다. 한편 계도위는 지난달 22일 공선협에 성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결산검사등 15개안건 토의

조계종 120회 종회

조계종 제120회 임시중앙종회가 지난달 27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5일간의 회기로 개최됐다.

81명의 재적의원중 59명이 참석한 종회 첫날, 1995년 결산검사를 포함한 15개의 안건을 토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차주 상보〉

종회는 1995년 조계종 예산 68억원중 세입 75억3천7백30만4천7백25원(110.8%), 세출 64억7천3백87만8천5백26원(95.2%), 차년도이월 10억6천3백42만6천1백99원을 통과시켰다.

한편 종책질의에서 기획실장 현응스님은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등의 종단관련 소송에 대해 "해종세력의 최근 소송은 종단개혁과 현종단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마지막 항거로 본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휘장 · 캐릭터 발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상징하는 휘장과 캐릭터가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는 연꽃을 중심으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5개의 꽃잎과 1개의 꽃받침 위에 꽃비를 아로새긴 휘장과 청소년의 해에 맞춰 일반대중에 친숙한 모습의 아기부처님 캐릭터를 발표했다.

청소년들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줍시다

전국 중 · 고교 대생용 미술교재로

현대불교 미륵반가상 석고 보급

종단 · 방송등 교계단체 적극 후원

전국의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술시간에 한국의 대표적인 금동불상인 미륵보살반가상(국보 83호)석고 모형을 바라보며 데생을 하게된다.

현대불교신문은 미륵반가상을 데생용 석고모형으로 제작, 전국의 중 · 고교 4천5백68개교에 보급해 미술시간에 데생교육의 기초교재로 활용케하는 운동을 4월부터 연말까지 범국민적으로 펼친다.

중 · 고교의 청소년들은 그동안 미술실기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데생을 아그리빠, 비너스, 줄리앙 등을 대상으로 익혀왔다. 이처럼 서양식 교육일변도로 무비판적으로 흐르고 있는 오늘의 교육현장에 대해 민족의 얼과 전통문화부재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어왔다.

현대불교신문은 청소년 교육현실에 경종을 울리면서 데생용 미륵반가상 석고모형을 전국의 중 · 고교에 배포하는 운동을 벌인다. 미륵반가상은 조형미와 온화한 미소등을 고려해 교계학계 미술계의 자문을 받아 범종사의 협찬으로 제작했다.

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얼 한국의 美의식을 바르게 심어주자는 이 운동은 개인 단체 기업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뜻깊은 운동은 종단협의회를 비롯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무원과 조계종포교원, 한국불교재가회의,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불교방송, 불교TV 후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본사 사령
임 조 형
命 제주 지사장
〈1996년 4월 1일자〉

법공양페이지 포함 20면 발행
4 · 11총선을 달리는 교계인사 4면
대중가슴 적시는 불음가요 13면
어린이 프로에 판치는 '불교왜곡' 20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55-1550-4

변산온천에서 태고의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한국 최고의 자연휴양지 변산반도에서 새로운 레저문화를 경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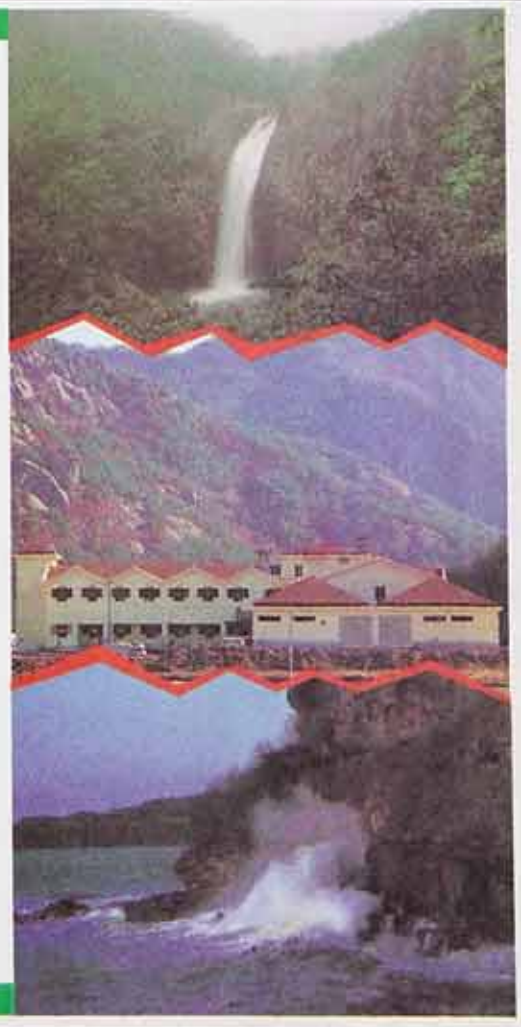
변산온천은 변산반도의 심장에 위치하여 바다, 산, 계곡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해변온천입니다.

변산에서의 휴양 변산온천에서 시작하십시오.

고품격 레저문화의 신기원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관광명소인 채석강, 해수욕장, 내소사, 직소폭포, 개암사, 천문대, 칠병암 등으로 가장 쉽게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한 차원 높은 휴양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변온천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채석강, 변산해수욕장을 바로 곁에 두고, 산과 계곡의 신비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매머드 자연 휴양지로 국내 최초의 해변 온천입니다.

국내 최고의 수질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중탄산나트륨, 알칼리성 수질의 온천수가 공급되는 온천탕은 무색 무명의 부드러운 물로서 피로 회복, 신경통, 갱년기장애, 노화방지, 피부미용 및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부인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천혜의 온천수입니다.

편리한 교통망, 최고의 서비스
서울에서 쉽게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서울→태인IC→변산온천:약 3시간30분 소요), 국내 최고의 해변 드라이브 코스,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최상의 안락함을 느껴보십시오.

YONSAN SPA RESORT 변산온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41번지
사무실 : TEL(0683) 82-8539, 83-8539 FAX(0683) 83-9555
리조텔 : TEL(0683) 82-5390~2